

## 뉴델리의 접촉지대, 북한 유학생을 만나다

H 대학교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최영현\*\* · 최선경\*\*\*

이 연구는 인도 뉴델리에 소재한 H 대학교 캠퍼스를 북한 학생 B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접촉지대'로 정의하고, 해당 학교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 캠퍼스는 일상에서 비교적 동등한 관계, 자유로운 상호작용, 그리고 친밀한 관계 형성이 가능한 공간이다. 민족지적 심층면접에 기반을 둔 이 연구는 북한 학생 B와 국제학생회 학생들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 탈북민이 아닌 해외에서 유학 중인 북한 국적자와 타 국적자 간 상호작용을 다루었다. 둘째, 북한 주민과 한국 학생을 포함하는 국적이 다양한 학생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해외 캠퍼스라는 공간적 효과에 주목했다. 셋째, 해외 대학이라는 접촉지대의 사례는 외부 세계라는 보다 큰 접촉의 맥락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북한 유학생, 뉴델리, 접촉 지대, 사회관계, 인식, 공간 효과

\* 이 글에서는 북한 출신 대학생이었던 B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인도 체류 시기를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뉴델리에서의 유학 생활이 비교적 최근 일임을 밝혀 둔다.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 1. 들어가며

어느 해 여름,<sup>1)</sup> 인도 뉴델리의 한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접촉지대(contact zone)가 포착되었다. 평양에서 온 북한 유학생 B<sup>2)</sup>가 H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면서 교류의 장이 열린 것이다. “내 이름 석자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라고 하면서 당찬 포부와 함께 자기소개를 했던 B는 유창한 영어 실력과 함께 개방적인 태도로 북한 출신 주민에 대한 정형화된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B가 학생회장으로 있었던 H 대학교 국제학생회는 국적이 다양한 학생들이 평양에서 온 B와 일상적으로 접촉이 가능한 교류의 장이 되었다.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했던 북한 사람을 처음으로 접하는 새로운 경험은 학생들이 북한(주민)<sup>3)</sup>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균열을 내었고,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는 필자 중 한 명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인도 H 대학 북한 학생 B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 
- 1) 이 글에서는 북한 출신 대학생이었던 B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인도 체류 시기를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뉴델리에서의 유학 생활이 비교적 최근 일임을 밝혀 둔다.
  - 2) 공식적인 통계는 자료를 찾기 어렵지만, 인도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 당국이 유학생을 많이 파견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 3) 남한에 정착한 북한 출신 주민들에 대한 인식은 분단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북한 출신 주민에게도 투사되는 경향이 있다. 윤인진·채정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상호인식: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이수정·양계민, “북한출신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 출신주민의 태도의 차이,”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1호(2013).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이 실제적으로 동시적인 성격으로 보고 북한과 북한 주민 모두를 포괄하는 북한(주민)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접촉자들의 인식 변화를 추적한다. 당시 연구자는 북한 유학생 B와 같은 학과에서 수학하며, 수업을 듣고 학생회 그리고 개인적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sup>4)</sup> 연구자는 H 대학교 국제학생회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이 다원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북한 학생 B와 친분을 맺은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이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였다. ‘통일의 대상’ 혹은 ‘안보 위협’이었던 북한이 ‘있는 그대로의 북한’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sup>5)</sup> 북한 주민 한 명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 전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일반화할 수 없지만, 당시 학생들이 경험한 북한(주민)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 변화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한 해외의 대학 캠퍼스라는 공간적 효과와 탈위계적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국내 지역사회 혹은 해외 거주지역과 같은 접촉지대를 다루었다.<sup>6)</sup> 몇몇 연구에서는 남북한 영토 내에서 어떠한 접촉이 일어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밝혔다. 예를 들어, 양문수 외(2013)는 개성공단 북한 근

4) 연구자는 북한 학생 B와의 접촉을 북한주민접촉법에 따라 당시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통일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였다. 논문 전반에서 B에 대한 필요 이상의 구체적인 묘사는 최대한 자제하였다.

5) 김병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사, 2016).

6) 이수정, “접촉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출신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2014), 105~114쪽; 이수정·양계민, “북한출신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출신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410~415쪽; 이수정·이우영, “영국 뉴몰든 코리아 타운 내 남한이주민과 북한난민간의 관계와 상호인식,”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1호(2014), 160~168쪽.

로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남한주민들에 초점을 맞추고 접촉의 효과가 일면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sup>7)</sup> 이수정(2014)은 인천 남동구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이를 통해 형성된 사회관계의 양상을 분석하였다.<sup>8)</sup> 해외의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주민의 교류를 다룬 연구로는 이수정 외(2014)가 영국 뉴몰든 코리아타운이라는 제3의 공간에서 남한이주민과 북한난민이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며 서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다.<sup>9)</sup> 신혜란(2018)은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관점에서 뉴몰든 북한 이주민과 남한 이주민의 과정에서 포착한 동화와 초국적 실천의 업힘을 분석하였다.<sup>10)</sup> 손명희(2018)는 캐나다 토론토의 북한 이주민의 적응 과정에서 현지 한인 사회와의 관계를 일부 다룬 바 있다.<sup>11)</sup> 이와 같이 남북한 접촉지대를 다룬 주요 연구들이 개성공단을 제외한다면 남한에서 발생하는 남북한 주민의 상호작용에 주목할 수 없었던 것은 남북한 주민 간 접촉이 불가능한 분단 현실에 기인한다. 해외 지역의 남북한 주민 접촉은 북한 난민과 남한 이주민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췄다.

---

7)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 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남한 주민에 대한 북한 근로자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17권 2호(2013).

8) 이수정, “접촉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출신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9) 이수정·이우영, “영국 뉴몰든 코리아 타운 내 남한이주민과 북한난민 간의 관계와 상호인식”.

10) 신혜란, “동화-초국적주의 지정학: 런던 한인타운 내 한국인과 교류 속 탈북민의 일상과 담론에서 나타난 재영토화,”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1호(2018).

11) 손명희, “탈남한 탈북 난민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 캐나다 토론토 거주자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2권 1호(2018).

이 연구는 남북한 주민 간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대부분의 해외 사례에서 다루고 있는 제3국의 코리아타운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그룹과의 상대적으로 평등한 교류가 가능한 해외 대학 캠퍼스라는 접촉지대에서 북한 국적 유학생과 그와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의 대학 캠퍼스라는 공간적 효과에 주목하여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북한 학생 B와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어떠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필자 중 한 명은 당시 B와 비교적 가깝게 지냈던 학생 11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탈북민이 아닌 공식적으로 해외에 이주한 북한 국적자와 남한을 포함하는 다양한 국적자 간 상호작용을 다루는 연구로 접촉지대 사례의 확장에 기여한다. 둘째, 북한 주민과 한국 학생을 포함하는 타 국적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상대적으로 동등하고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한 해외 캠퍼스라는 공간적 효과에 주목한다. 셋째, 한국을 포함하는 다양한 국적자들과의 상호작용이 국적에 따라 어떠한 접촉과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하여 남북한 사회통합뿐만이 아니라 외부 세계라는 보다 큰 접촉의 맥락을 논의하는 데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다.<sup>12)</sup>

---

12) 해외에 파견된 북한 주민으로는 유학생, 외화벌이 노동자, 외교관 등이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몇몇 해외 대학은 남북한 유학생이 마주치는 접촉지대가 되고 있다.

## 2.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 1) 접촉지대와 상호작용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북한 학생과 만나고 충돌하는 ‘접촉지대(contact zone)’는 언어,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community)’와는 상반된 개념으로 동질적 공동체로 기능하지 않는다.<sup>13)</sup> 오히려 개인 혹은 집단들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 사회적 배경을 지닌 이질적인 주체들이 서로를 재구성하는 공간에 가깝다. 다시 말해, 접촉지대는 “지배와 복종, 식민주의와 노예제도 등과 같이 극도로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또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전 세계를 가로질러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이 극도로 비대칭적인 관계가 초래한 결과 속에서 이종 문화들이 만나고 부딪히고 서로 맞붙어 싸우는 사회적 공간”이다.<sup>14)</sup> 이러한 맥락에서 H 대학 국제학생회는 북한에 대한 이질적인 지식과 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는 접촉지대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공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을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 즉 문화적 차이에 대해 해석의 주체로 바라보고 서로의 언어, 행동양식, 가치관 등이 어떻게 (재)번역되고 의미화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5)</sup>

---

13) Mary Louise Pratt, “Arts of the Contact Zone,” *Profession*, Vol.91(1991), p.37, 39.

14) 메리 루이스 프랫(Mary Louise Pratt), 『제국의 시선』, 김남혁 옮김(서울: 현실문화, 2015), 32쪽.

15)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5), 41~62쪽; 이수정, “접촉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92쪽.

접촉지대에서의 접촉은 접촉 가설의 틀로 살펴볼 수 있다. 접촉 가설(contact theory)은 집단 간 접촉이 늘어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쌓이면서 편견과 고정관념과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올포트(Allport)는 서로 다른 집단이 서로에게 가지는 편견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는 양 집단 구성원들의 긴밀한 상호접촉을 통해서 상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동등한 지위, 공동 목표 추구, 권위·범·규범의 지원, 상호의존적 친밀한 접촉 등이 그것이다.<sup>16)</sup> 페티그루와 트롭(Pettigrew & Tropp)은 현존하는 접촉가설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접촉은 편견을 줄인다”라는 보편적인 교훈의 유효성을 입증하기도 했다.<sup>17)</sup> 특히 이 연구의 공간적 무대인 ‘대학’은 부정적 상호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갖추고 있다. 학교와 학생 관계 간 관계를 중재하는 국제학생회라는 공간은 상대적 평등성을 유지하면서 개개인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쌓아 가는 것이 가능한 ‘접촉지대’이다. 해외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신원을 묻지 않는, 즉 ‘정체성을 괄호에 넣은 환대’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sup>18)</sup>

한편으로 빈번한 접촉은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을 증폭하기도 하는데, 이는 접촉지대에서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뒤섞이면서 발생하는 이중성, 경계성, 중간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19)</sup> 접촉지

---

16) Gordon W.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New York: Doubleday, 1958), pp.251~267.

17) Thomas F. Pettigrew and Linda R. Tropp,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0, No.5(2006), pp.751~783.

18)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서울: 문학과지성사, 2015), 208~209쪽.

19) M. Nonini, “Shifting Identities, Positioned Imaginaries: Transnational

대에서 마주침의 맥락에 따라 편견이 극복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데, 이는 접촉지대에서 형성되는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 2) 연구방법: 민족지적 심층면접

이 글은 북한 유학생 B와 교류한 인도 H 대학교 학생들의 인식 변화 과정을 다룬 민족지적 연구이다. 민족지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삶의 현장에 참여하면서 연구 참가자들의 관찰에 기초하여 특정 공동체의 행태와 사고방식의 틀을 파악하는 연구방법이다. 일상에서의 참여 관찰과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참가자들의 관점, 의식, 행위를 해석할 때 편재하는 이분법적 담론을 극복하고 주어진 특수한 환경의 복잡성을 드러낼 수 있다. 즉, 문화집단 내부의 시선과 사회과학적인 관점을 절충하여 주어진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sup>20)</sup> 아울러 민족지적 연구는 이론에 부합하는 사례 분석을 넘어 사례 안에 숨겨져 있는 맥락을 미시적으로 드러내 고자 하는 시도이다.

연구자는 당시 H 대학에서 북한학생 B와 지속적인 교류했던 11명의 당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설문조사와 온라인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구글 설문지(Google Survey)를 통해 다수의 주관식 질문에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일차적으로 진행한 까닭은 B와의 접촉 이후 일정

---

Traversals and Reversals,” *Ungrounded Empires* (New York & London: Routledge, 1997).

20) David M. Fetterman, *Ethnography: Step-by-Step* (3rd ed.)(Thousand Oaks, CA: SAGE, 2010), p.11.

시간이 지났으므로 연구 참여자들의 당시 기억을 환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설문지와 심층면접에는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B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인식
- 2) B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특별한 기억
- 3) B의 학업적인 측면과 국제학생회장으로서 역할
- 4) B의 세계관과 북한에 대한 묘사
- 5) B와 교류하면서 북한에 대한 기존의 편견이 깨졌던 경험
- 6) 연구 참여자의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 7) 연구 참여자가 북한에 대한 갖고 있던 편견이 지속되었는지
- 8) B의 북한에 대한 ‘내부적 관점’을 접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 9) B가 북한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을 본적이 있는지
- 10) B가 전형적인 북한 사람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지

연구 참여자들은 당시 H 대학교 재학생들이며, 그중 대부분은 B와 함께 국제학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맥락과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한국 학생들은 학사 과정생들로서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sup>21)</sup> 인터뷰를 진행한 필자 중 한 명은 당시 B와 같

---

21) 비슷한 시기 동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한국 국적 학생들에 대한 연구로는 Sarah Jane D. Lipura, “Deconstructing the periphery: Korean degree-seeking students’ everyday transformations in and through India,” *Comparative & International Education*, Vol.16, No.3(2021) 참조.

〈표 1〉 심층면접 참여자 프로필

번호	이름	국적	성별	전공	접촉 기간
1	기찬	대한민국	남	불어불문학 학사과정	1년
2	기환	대한민국	남	노어노문학 학사과정	1년
3	서원	대한민국	여	노어노문학 학사과정	1년
4	셋별	대한민국	여	독어독문학 학사과정	1년
5	지나	대한민국	여	국제정치학 석사과정	1년
6	임마누엘	말라위	남	국제정치학 석사과정	2년
7	아르피	인도	여	국제정치학 석사과정	2년
8	자카	인도	남	국제정치학 석사과정	2년
9	히만슈	인도	남	국제정치학 석사과정	2년
10	텐진	티베트	남	국제정치학 석사과정	2년
11	알리	남수단	남	국제지역학 석사과정	2년

은 국제학생회 임원이었으며, B를 비롯하여 연구 참여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연구는 캠퍼스에서의 일상에 대한 참여관찰과 국제학생회 학생들의 서사를 포함하는 민족지적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심층면접은 이후 줌(Zoom)을 이용한 화상 회의 혹은 대면 방식으로 평균적으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수합한 설문지 응답 가운데 흥미로운 지점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질문은 북한에 대한 기존 인식, B에 대한 인식과 변화, B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과 대화 등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기록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이 연구의 사례들은 시간 경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의 기억과 의

식의 변형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북한 학생과의 상호작용과 의식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심층면접은 한국 학생들과는 한국어로, 타 국적 학생들과는 영어를 사용하여 진행했으며, 영어 인터뷰 내용은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 3. '뉴델리 H 대학'의 공간적 특성

이 연구는 접촉지대인 H 대학교의 공간적 특성을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파악한다. 인도의 다원주의적이고 탈식민주의적 사회 분위기는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 대안적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인도 사회의 다양성과 급진적 정치 성향을 대변하는 H 대학교의 특성 그리고 B가 소속되었던 국제학생회가 공동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던 상황은 공간적 특성은 학생들의 접촉과 관계가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현상이 되었다.

#### 1) 인도의 탈식민주의 담론

인도에서 역사적으로 발전시켜온 탈식민주의 담론은 인도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식민통치 시대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제3세계의 대표를 자처하는 인도는 독립 이후 서구 중심적인 역사관을 거부하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탈식민주의 담론을 구축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sup>22)</sup> 다시 말해, 정치, 종교, 언어, 문학, 젠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찰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

서 탈식민주의는 단순히 국가 간 관계를 넘어 제3세계 국가들에 배태된 정체성을 규명하고 현존하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것이다.<sup>23)</sup> 인도는 대외적으로도 서구중심주의적 시각을 비판하고 인도 고유의 관점과 입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다.<sup>24)</sup> 여기서 탈식민주의는 단순히 제국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타자화와 구별된 방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도의 탈식민주의 담론은 근대주의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해체된 전근대적 정신의 복원작업을 중요한 과제로 여긴다. 예를 들어, 인도는 베스트팔렌 체제 이전 종교, 언어, 거주지 등이 충돌 없이 조화롭게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했던 사회문화를 영위했는데, 그러한 서구적 근대 이전 형성된 가치의 재발견을 인도의 탈식민 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특히 인도 학생들은 인도 사회에 흐르는 서구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저항하는 탈식민주의적 역사관으로 사고해 왔다. 이러한 인도 사회의 대안적 관점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북한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의외로 인도에는 많은 북한 학생들

---

22) Sankaran Krishna, "Race, Amnesia, and the Educ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Alternatives: Global, Local, Political*, Vol.26, No.4(2001), pp.404~408, 420~421.

23) Phillip Darby and A. J. Paolini, "Bridging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ostcolonialism," *Alternatives: Global, Local, Political*, Vol.19, No.3(1994), p.375.

24) 이러한 경향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유럽은 유럽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언급한 인도 외무장관 자이산카르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25) Navnita Chadha Behera, "Re-imagining IR in Ind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7(2007), p.352.

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sup>26)</sup> 북한의 유학생 파견은 북한-인도 관계에서 유래한다. 최근 들어서야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인도와 관계 발전을 도모한 남한과 달리, 북한은 냉전시기부터 인도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던 양측의 군사 및 경제 협력은 차치하더라도, 두 나라는 몇 가지 역사적 궤를 함께한다. 인도는 독립 이후 사회주의와 주체(self-reliance)를 표방하며 국제사회에서 비동맹주의를 선도했었다. 인도의 초대 수상 자와할랄 네루의 대외 정책 기조는 국가적 자주성과 반제국주의에 기반하는데, 이는 인도의 뼈아픈 식민의 유제(legacy)에 기인한다. 인도는 냉전 기간 동안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에 따른 안보 위기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의존 대신 자급자족의 길을 선택했다. 또한, 인도는 현재까지도 핵확산 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이 “차별적”이라는 입장에서 조약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1970년대에는 안보 불안에 따른 독자적 핵 무장의 대가로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궤적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인도에 꾸준히 유학생들을 파견해 왔다는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 2) 접촉시대, H 대학교

뉴델리에 소재한 H 대학교 캠퍼스는 약 1,000에이커의 숲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문학부를 제외하고는 학부 과정을 지원하지 않는 연구 중심 대학이다. 캠퍼스는 사방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세 개의

---

26) 코로나 전까지 매년 평균 60명 정도의 북한 유학생들이 인도에 체류했다고 알려진다.

출입문은 보안업체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된다. 캠퍼스 내부에는 인도에 흐르는 강들의 이름을 딴 기숙사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식당, 식료품점, 의료시설 등 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 버스와 오토릭샤의 상시 운행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내부가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서 호저, 공작, 날개이 등의 야생동물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렇듯,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캠퍼스를 도시와 분리된 심리적 요새로 느끼기도 한다. 캠퍼스는 새벽 시간까지 도로를 걷거나, 앉아서 짜이(chai)를 마시면서 토론을 하는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B는 캠퍼스 내 거주하지 않았지만,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캠퍼스 안에서 보냈으며 매일 다른 학생들의 기숙사 방에 찾아다니곤 했다. 사용되는 언어도 다양하다. 교내에선 공식적으로는 영어를 사용하고, 힌디어가 의사소통을 위한 공통어(lingua franca)가 되지만, 인도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마라티어, 타밀어 등 다양한 언어가 사용된다.

H 대학교는 인도 내부적으로 단순한 대학교 이상의 사회정치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첫째, 저렴한 학비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대학이다.<sup>27)</sup> 인도 법에 근거한 특정 카스트와 계급에 입학정원을 배분하는 할당제(reservation)가 존재하기 때문에, 캠퍼스는 다양한 사회 계층의 학생들이 교류하는 접촉지대가 된다. 모든 카스트에서 학생들이 두루두루 선발되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경제적 보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인도는 영토가 넓고 각 지역이 지

---

27) 우스갯소리로 “맥도날드 햄버거보다 싼 학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리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분절적 성격을 띠지만, 캠퍼스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어울리고, 브라만이 달리트와 마주하며, 힌두와 무슬림이 공존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인도는 유학 불모지로 여겨지지만, 학교 차원의 잦은 국제 교류를 통해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유학생들이 오기도 한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요인 때문에 H 대학교는 인도 사회에서 평등과 다양성을 상징한다.

둘째, 인도 정쟁의 대리전을 캠퍼스에서 종종 볼 수 있다. H 대학교는 당시 총학생회장이 공산당원일 정도로 인도 마르크스주의의 명맥을 잇고 있으며, 인도 내 급진적 성향의 지식인과 활동가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주로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의 정책이나 다양한 사회문제에 반발하는 시위를 한다. 당시 거의 매일 캠퍼스 어딘가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직적 수업 보이콧이 강행되었다.<sup>28)</sup> 학교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정치적 갈등이 발생했다. 인도 내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익단체인 민족봉사단(Rashtriya Swayamsevak Sangh)의 단원들이 캠퍼스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며, H 대학교 총장실의 친정권적인 성향으로 학교 측과 학생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포함한 다양한 마찰들이 빚어졌다. B가 수학했던 시기에는 역사적인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학교 측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급격한 기숙사비 인상과 통행금지 시간 실행이 시위의 발단이었다.<sup>29)</sup> 학생들과 교수들은 이를 인도 정부의 학생들에 대한 생

---

28) 이들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여론이 달갑지만은 않다. H 대학교 학생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시위나 하며, 공부는 하지 않는다”라는 비난을 받는데, 이는 인도의 주류 사회는 이들의 좌편향적인 정치적 어젠다를 받기 않기 때문이다.

29) 기숙사비 인상의 내용은 평균적으로 연간 30,000루피 정도였던 기숙사비를 150% 이상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학생들에게 무리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

존권 위협과 정치 탄압으로 간주하고 정부와 H 대학교 총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견잡을 수 없이 격렬해졌다. 학생들은 총학생회의 주도 아래 각 교내 건물들을 무단 점거했고, 학교의 기능이 완전히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 3) 국제학생회의 공동 목표

올포트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접촉 효과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보았다. B가 학생회장으로 몸담았던 H 대학교 국제학생회는 국가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H 대학교 시위 사태와 맞물려 국제학생들의 원활한 학기 종료와 안전 보장을 공동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국제학생회는 총학생회와 함께 H 대학교의 공식 학생 자치기구이며 매년 선거를 통해 회장단이 구성된다. 외국 국적의 학생들만의 투표를 통해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교환학생 대표가 선출되며, 통상 5명이 한 팀을 꾸려서 출마한다. 선출된 회장단은 내부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행사를 주최하는 등 국제학생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활동한다.

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국제학생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인도 특유의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외국인 새내기 입학생들이 등록 과정에서 매번 곤욕을 치르기 때문이다. 외국인 학생들은 친절한 안내 없이 교내 여러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서류작업을 해야 하고,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입학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행정 직원들은

---

이 아니라는 의견과 H 대학교 학생들이 이미 특권층이라는 주장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오갔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 수는 H 대학교 총학생의 3분의 2 정도이며, 그중 대부분이 저소득층 가정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때로 어디론가 “마실을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음 날 다시 와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특정 부처에서는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학생회의 역할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임원들이 학생들을 한 명씩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북한에서 온 B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국제학생회는 ‘문화의 밤’이나 ‘국제음식축제’와 같은 큰 행사를 주최했다.

앞서 언급한 H 대학교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생 시위로 국제학생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인도 학생들의 오랜 시위와 건물 점거로 인해 학기가 중단되어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국제 학생들이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학교가 기능을 상실하고 행정실까지 문을 닫으면서 사상 초유의 무정부 상태가 펼쳐졌다. 견잡을 수 없이 커진 정치적 대립 속에서 평화로웠던 캠퍼스는 험악한 분위기로 물들었다. 한 번은 복면과 몽둥이로 무장한 특정 정치 집단이 캠퍼스 내부로 침입했던 일이 있었는데, 한 중국 학생은 길에서 본인의 차량을 탈취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제학생들이 비자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손을 쓸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렇게 되자 국제학생회에는 학생들이 무사히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중책이 떨어졌다. 회장단은 학생들의 고충 사항들을 반영시키기 위해 매일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협력하기 위해 동분서주 매달렸다. 북한 유학생 B는 학생회 임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역할을 소화하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그 당시, 캠퍼스 어디를 가도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감동받았다. 결국 학생회는 총장을 비롯하여 총학생회와 교수

회를 설득하여 전례 없는 ‘대안 평가’를 도입했고, 국제학생들은 대안적 방식, 즉 기말 평가를 대신할 특별 과제를 제출하여 학기를 마무리 짓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의 총장은 B의 설득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의 협상 능력을 여러 번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B가 회장으로 있던 시기는 난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주어졌던 때이다. 사실 B의 임기 기간 전까지의 국제학생회는 협력과 화합과는 거리가 먼 집단이었다. 전임 회장단은 집단 내 특정 분파의 갈등으로 인해 회장단 임기 마지막까지 크고 작은 신경전이 있었다. 하지만 B가 활동했던 시기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는 학생회를 단합시켰고 많은 학생들이 B와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H 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회장 선출 선거는 국적 기반의 머릿수 싸움이다. 출마를 위해서는 동일 국적의 학생들이 많아야 되므로 아프가니스탄, 티베트, 네팔 등 학생 수가 많은 인도와 인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임원이 된다. 동일 국적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B가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학생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 4.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필자가 본 북학학생 B는 입체적인 성격을 가진, 필자와는 동갑내기 친구였다. 매사에 진지한 말투와 태도로 임하면서도, 자동차 같은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그래도 우리와 같은 20대 초반이구나’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는 입이 험한 편이었다. 누구에게나 항상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면서도,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뒤에

가서 흥을 보곤 했다. 흥미롭게도 연구자 몰래 남한에 대한 욕을 했다는 사실도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이 많아, 친한 친구의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해결을 위해 애썼다.

자신의 본국 이야기가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서방 매체를 비판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지만, 때때로 북한에 대한 조롱을 여유롭게 유머로 승화하기도 했다.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가방은 왜 가지고 다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거 자세히 보시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다재다능하고 항상 자신감이 넘쳤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압감에 시달렸다. 무엇보다 그가 원하던 원치 않든, 그에게는 언제나 ‘북한’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B가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는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반는 관심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대하길 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_자가

### 1) 북한에 대한 기존 인식: 불량국가이자 ‘한민족(Korean nation)’

면접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기존 인식은 미디어에서 접하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 사람에서부터 국가까지 포괄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공유했다. 이렇게 된 데는 주로 대중매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북한을 고립된 세계 혹은 통일의 대상으로 묘사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같은 북한 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봤는데 거기 나오는 북한 사람들은 세뇌를 당해서 국가에 충성적이고, 지루하고 자존심이 강한 것 같았어요. 말 표현이 직설적이고, 탈북자가 아닌 이상 자기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보였고, 고립된 나라에서 살다 보니 외부 세상과 접촉 시 잘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_셋별

종편 채널의 북한 관련 오락 프로그램은 북한의 정치·경제·군사 문제에 주된 관심을 두고 북한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탈북민 출연 프로그램에서는 북한을 ‘여성화’하고 ‘미성숙한 존재’이자 ‘전근대적 세계’로 대상화하는 경향이 있는데,<sup>30)</sup> 이는 수용자의 북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한편, 한국 학생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민족주의적 정서를 지닌다. 한국 학생에게 적대 국가이면서도 단일민족이며 훗날 단일한 국가를 이루어야 하는 통일 지향적 성격을 띤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복잡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생각할 때 독재 체제, 군사 도발 같은 부정적 측면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한민족, 전쟁의 아픔이 먼저 생각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북한은 한민족, 통일되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내외부적 이유로 분단이 됐지만, 그래도 한민족으로서 다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시에 주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해서 북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생겨난 것

---

30) 방희경·이경미, “종편채널의 북한이미지 생산방식,” 『한국언론학보』, 제60권 2호 (2016).

같습니다. \_서원

다른 국적의 학생들은 북한의 정치 체제와 국제정치 행태를 근거로 불량국가(evil state)로 인식했다. 한 인도학생이 북한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적을 막론하고 북한에 대한 지식이 비대칭적이면서도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세계에 있는 여느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북한 하면 사악하고 괴이한 독재정권이나 낙후된 국가 정도가 떠오릅니다. \_자카

## 2) 대안적 관점과 편견 해소

“B와의 접촉 이후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는가”라는 다소 일차원적인 질문에 인터뷰 참여자 전원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동등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가 가능하면서도 자유로운 상호작용의 현상이 된 H 대학에서 B와의 접촉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미디어로 인해 오염된 북한에 대한 편견을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북한에 대해 친근감, 호기심, 공감 등의 정서적 반응을 공유했다. 친근함은 주로 B의 개인적인 성격에 기인했다.

B는 매우 예의가 바르고, 공손하며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친구들과 강의시간이나 식사시간에 주로 캠퍼스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캠퍼스 밖으로 데려가서 같이 놀기도 했는데, 특별히 그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업적으로도

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_아르띠

아르띠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 B는 캠퍼스에 머무르면서 다른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의 활발한 성격과 의외로 들어줄 만한 유머 감각은 기존에 존재하던 북한 사람에 대한 딱딱하고 폐쇄적인 고정관념을 희석시키는 면이 있었는데, 문제를 비꼬는 유머 감각이 탁월했다. B는 H 대학의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불만을 그 나름 대로의 유머로 승화하기도 했다.

B는 활발하고 친절했고 말도 재밌게 했습니다. 특별히 학기 초에 학비를 내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도와주다가 혼잣말로 “이 새끼들 돈 받는 거는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지”라고 했는데, 말이 직설적이어서 너무 웃겼었습니다. \_셋별

아르띠와 셋별에게서 확인할 수 있듯, B는 대부분의 경우 학생회에서 다른 학생들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은 그와 교류한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인간적인 면을 심어 주는 기회가 되었다. 미디어와 같은 매체에 의해 입혀진 북한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이 B와 직접 만나서 해소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 학생들은 B의 존재를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 만나도 돼요?”라고 우려를 표했지만, 기억 속에 고마운 존재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B를 처음 만난 학생들은 그의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학생들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B의 인간적인 매력과 친근한 인상은 그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인도에는 어떻게

오게 된 것인지 등을 질문하며 북한 유학생 B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에 대한 관심이 B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유학생 기환은 B의 “동네 형”과 다름없는 친근한 모습에 다양한 북한 사람들과의 조우를 희망했다.

B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처음에는 그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얘기를 해 보니까 언어 차이는 있어도 동네 형과 대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알파하고 인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친근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도 다른 북한인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B를 만나고 나서 다른 북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_기환

친근감과 호기심에서 시작된 B와의 대화는 자유로운 소통으로 이어졌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B는 캠퍼스 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토론에 할애했으며 현존하는 담론에 대한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실과 동의 여부를 떠나 학생들은 B를 이해하고 공감했다.

B는 항상 우리의 대화에 에너지와 열정을 더해 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북한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많은 상위 카스트 계층의 친구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중국의 안보’를 주제로 강의를 같이 들었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교수님의 선전에 가까운 강의를 태연히(unabashedly)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같은 동료(comrades)였습니다. \_히만슈

주지하듯이 북한에 대한 지식은 고정적이며 주로 “단일하며, 폐쇄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지배집단이 완전히 장악한 사회”로 이해된다.<sup>31)</sup> 북한과 세계가 조우하는 접촉지대에서는 비대칭적 지식과 담론의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의미가 창출된다. 다시 말해, 접촉지대는 지배 담론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내재한 공간인 것이다.<sup>32)</sup> B는 일상 속 만연히 퍼져 있는 북한에 대한 “서구주의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워야 했다.

B는 불임성이 좋고, 생각을 나누는 것을 즐기는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가서 파티를 즐기기도 했는데, 그는 주류 매체들이 보여 주지 않는 북한의 다른 모습들을 알려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를 통해 북한에는 뛰어난 지도부가 있고, 학교나 병원과 같은 복지시설들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_임마누엘

B는 그의 국적으로 인해서 미묘한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를 둘러싼 차별들을 흡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H 대학교에 있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친구로 만들었으며, 결국에는 선거를 통해 국제학생회장으로 선출되기까지 했습니다. \_텐진

학생들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북한의 새로운 면모가 있다는 사실

---

31) 이수정, “접촉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출신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2014), 90쪽.

32) 박지훈, “메리 루이스 프랫과 접경 혹은 접촉지대 연구: 비판적 평가와 대안적 전망,” 『역사비평』, 제136호(2021), 175쪽.

을 인정했고, B가 묘사하는 북한을 흥미롭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B의 의견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태도는 주류 시각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는 H 대학교의 환경적 요인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B 또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이미지를 해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B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편견에 저항했다. 첫째, 그는 토론을 통해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자 했다. 당시 캠퍼스에서는 그가 학생 두세 명을 붙잡고 북한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주로 북한의 내부적 관점, 아름다운 명소 혹은 사회주의의 우수성에 대해서 언급하곤 했다. 연구자가 인상 깊게 기억하는 대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국제학생회 선거운동을 위해 기숙사를 돌았을 때였다. B는 비좁은 공간에 붙어 있는 방들을 보면서 H 대학교 기숙사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지어진 것이라며 사회주의 사회의 “가족 같은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했다. 사회주의적 교육 방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사제관계와 교우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을 수 있었다. B는 학생들과의 토론에서 기존 담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둘째, B는 국제학생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다. B의 재임 기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텐진의 인터뷰에서도 일부 언급했듯, 단체채팅방에서 B를 최고 지도자(supreme leader)라고 부르며 조롱하거나,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북한과 연결 지어 트집을 잡는 학생들도 있었다. B는 회장직을 수행하며 국제학생회의 운영 방식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꾀했다. 모든 회의 때마다 민주적인 절차를 과도할 정도로 강조하였으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솔선수범을 보이며 북한의 권위주의적 이미지를 벗고자 했

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국제학생회에 신소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왓츠앱(Whatsapp)에 공식 신소 계정을 만들고 학생들과의 직접 소통하며 고충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북한 체제에 대한 확신을 보여 준다. 이러한 북한적 규범을 실천하는 B의 모습은 여전히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초국적 이주자로서의 혼종적 성격을 드러낸다.

### 3) 접촉의 양면성: 편견의 고착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 연구 참여자들은 H 대학교의 공간적 효과, B의 개인적 인간미, 그리고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교류의 경험이 맞물리면서 북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친밀감이 쌓이면서 미디어에 영향을 받은 기존 인식이 되돌아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접촉은 편견에 대한 재고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증폭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기존 인식과 B를 통해 발견한 ‘북한적인 것’이 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올포트는 기존의 일반화에 부합하는 증거와 상반되는 증거가 있으면, 전자는 받아들여지고 후자는 배제하는 경향이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며 이를 재경계화(re-fencing) 장치라고 설명했다.<sup>33)</sup>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편견이 실제 경험에 맞아떨어질 때 북한에 대한 기존 태도를 고수하며 강화했다.

B가 북한인인 걸 알고 보니 옷차림새가 눈에 들어왔는데 흰 셔츠에 검정 슬랙스, 검정 운동화, 회사가방이어서 “역시 이런 건 좀 올드하

---

33) Gordon W.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1958), p.23.

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_셋별

B와 대화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항상 국가의 지침에 따라야 하고, 그 울타리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B도 비슷하게 항상 규칙과 규제를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학생회장으로서 성명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때에도 B는 항상 ‘나’(I)가 아닌 ‘우리’(We)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나’라고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에선 언제나 국가가 개인보다 우선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_알리

면접 참여자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B의 옷차림과 같은 ‘북한스러운’ 아버투스는 후진성의 이미지와 접합되었으며 북한의 정치적 현실과 집단주의적 문화를 비판적으로 연결 짓기도 했다. 한편, 임마누엘의 경우, 특권층으로 추측되는 B의 출신 성분으로 인해 북한 체제 지향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교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가 북한의 정권을 편향적으로 옹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_임마누엘

접촉의 양면성은 B가 이른바 ‘특권층’일 것이라는 추측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B가 북한 엘리트 출신이라고 생각했으며, 해외에 나올 수 있는 자유, 유창한 영어 실력 등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북한의 상류층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당시 엘리트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는 거리를 두고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권층이 아닌 일반 북한 사람들은 과연 인도에 올 수 있었을까 싶었고, 수준 높은 영어 실력도 다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_기환

원래 북한 체제나 김정은의 행보, 계층 간의 차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B를 만나고 체제와 고위 계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 내에서 일반 북한 국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이주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를 만났을 때 계층 간의 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_서원

해외도 나올 수 있는 이주의 자유를 통해서 고위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미국인인 줄 알았을 정도로 영어를 잘했습니다. 흔히 말해 북한에서는 “있는 집 자식”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체구나 체형, 지적인 부분 등 고루 갖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_기찬

연구자도 같이 길을 걷다 장난삼아 ‘대홍단감자’ 노래를 아는지 물었다가, 예상치 못하게 B에게 ‘고난의 행군’에 대해 한바탕 설교를 들은 경험이 있다. 그가 회고하는 고난의 행군은 슬픔이나 비극이라기보다 시련을 극복했다는 영광스러운 기억이었다는 사실에 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하루는 B가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물어 본 적도 있다. 그는 “백두산의 거친 날씨도 김정은이 말을 타고 올라갈 때면 신기하게 잠잠해진다”고 했는데 평소 비판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닌 B에게서 북한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발견한 것은 이

질성을 느끼게 된 순간이었다.

B와의 접촉은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던 고정관념의 강화를 통해 부정적 인식 강화도 초래했다. 상상 속에 존재했던 고정관념이 B와의 직접적 만남을 통해 실체가 되었을 때 북한에 대한 편견은 선명하게 도드라진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B가 특권층 출신이라고 추측하며 그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경험한 접촉의 부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주체들이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성찰하며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부정적 효과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다양성과 이질성이 충돌하는 접촉지대에서 B와의 접촉은 긍정과 부정 스펙트럼을 넘어선다.

## 5. 접촉지대의 공간적 효과

### 1) 주류 시각에 대한 성찰

H 대학 국제학생회는 북한에 대한 이질적 지식과 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는 접촉지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 반응은 북한에 대한 주류 시각을 자성적으로 성찰한 것이다. B와의 접촉은 학생들이 대안적인 관점을 통해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소위 주류 시각과 대안적 시각의 대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전자가 후자에 비해 마냥 더 정확하다거나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생겼다. 흥미로운 점은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대중매체 등에 의해 주류 시각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주로 대중매체에 근거했었습니다. B를 만나기 전까지 아는 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의 구성원과의 만남을 통해, 그 국가에 대한 설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북한에 대한 서사는 여러 가지로 흥미로웠는데, 특별히 1950~1970년대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국제적 위상이 높았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은 남한 측 대사관의 후원을 받고 있는 H 대학교 한국어학과가 초기에는 북한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_텐진

<VICE>에서 봤었던 다큐멘터리에서 알게 되었던 정보들을 B를 통해 검증해 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김정은을 신처럼 모시니?”, “북한에는 허용되는 헤어스타일이 정말 6가지밖에 없니?” 등의 질문들을 할 때면, 그는 저의 “미국화된(Americanized)” 지식들에 반박하곤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북한이 미국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군무장이 북한 인민들의 주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인지 역설했습니다. 그는 남한을 미국의 51번째 주(state)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_자가

이와 같이 B와 접촉한 학생들은 그의 북한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는 접촉지대인 H 대학의 학문적 방향성과 관련이 있다. H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관계이론 수업에는 주류 이론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보다, 비판이론, 마르크스주

의, 페미니즘 등 비주류 이론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정치학 수업에서는 인도 내 ‘주류’인 힌두이즘과 서구 중심주의적 관점이 H 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카는 스스로의 지식이 미국화가 되었다고 성찰했다.

## 2) 탈식민주의적 맥락에서 북한 인식

접촉지대 자체의 특성 외에도 개인적 배경과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 주류 시각과 대안적인 시각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는 단순히 그것에 대한 자아성찰에서 그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사회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B의 “비주류적” 목소리에 공감하였다.

주로 상류층이나 상위 카스트 계층을 대변하는 인도 매체는 서방 세계의 입맛에 맞게 북한에 대한 시각을 만들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도 매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인도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에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체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사악한 국가로 생각하지 않기로 쉽지 않았 습니다. \_히만슈

히만슈의 경우, 북한에 대한 인식을 인도의 탈식민주의적 가치관과 연결 지어 이해했다. 인도의 사회구조는 카스트 제도로부터 적립되어 온 종교적 힘과 1991년 시장 개방 이후 유입된 경제적 힘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에 의해 조정되는데, 이 밖에도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듯 복잡한 사회구조에도 불구하고,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의 명확한 이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히만슈는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방식’과 ‘인도의 상위 카스트’를 유사한 범주로 여기고 동일시켰다.

앞서 언급한 텐진은 티베트의 역사적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민족운동가이다. 역사적인 이유로 인도에는 많은 티베트 학생들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행정상 난민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히만슈와 마찬가지로 억압/피억압의 이원화를 통해 ‘서구중심주의에 의해 은폐당한 북한의 실재’와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티베트의 실재’의 맥락의 유사성을 언급했다. 텐진이 주장하는 역사에 대한 재논의와 재평가의 중요성은 B의 대안적인 역사 관점과 조용하면서 북한에 대한 보다 포용적 태도를 가능하게 했다.

### 3) 한국 학생들의 내집단화

심층 면접 과정에서 발견된 한국 출신 유학생들과 다른 국제학생들 간 차이는 내집단화이다. 남한 학생들은 접촉을 통해 재구성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외집단과 내집단 사이에서 북한을 어느 지점에 위치시킬 것인지 해석하고 협상한다. 한국 학생들에게 있어 북한은 잠재적 통일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안보의 위협이기도 하다. 분단은 고착되고 있으며 통일은 당위로 존재할 뿐이다.<sup>34)</sup>

하지만 남한 학생들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의 공간에서 B를 마주함으로써 기대하지 않았던 민족적 동질성을 발견하기도 한다. 인도라는 타지에서 외집단으로 구분되어 온 북한이 ‘한민족’으로 범주화하게 된다. 개인이 느끼는 내집단의 범위는 유동적이며 상황에 따라 확

---

34) 교육, 군대,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통일 담론은 쇠퇴해 온 면이 있다.

장 혹은 축소되기도 한다. 이러한 내/외집단에 대한 (재)정의는 상정된 외집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sup>35)</sup>

우선, H 대학 내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B 본인도 스스로를 ‘한민족’으로 정체화했다. 예를 들어, 그는 평소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으며 대한민국의 2018 월드컵 독일전은 통쾌한 승리였다고 흥분을 숨기지 않았다. B는 한국 출신 학생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었고, 평소에도 챙겨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못한 것 같이라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통일을 주제로 대화를 할 때에도 ‘흡수통일’이나 ‘적화통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은 서로 삼갔지만, ‘민족적 비극’이 하루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한국 학생들은 B와 접촉하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문화적 교집합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한국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언어와 문화 영역에서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상 속 타자로 존재하던 북한 (주민)은 접촉지대에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민족’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B를 통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도, 북한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B랑 말이 통한다는 사실에 웬지 모를 작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진짜 언어도 통하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B가 김치 나눔을 했을 때에도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_서원

---

35) Gordon W.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1958), pp.33~35.

정제된 말투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풀어진 모습이었고, 욕도 하는 걸 들으면서 조금 더 인간미가 느껴졌고, 대화하면서 진심이 느껴져서 벽이 깨졌던 것 같습니다. 함경도와 전라도 사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에도 다양한 사투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_지나

생각나는 특별한 기억은, 학교 캠퍼스 안을 걷다가 우연히 B를 만나 몇몇의 한국 친구들과 함께 B의 생일파티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수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B가 가져온 북한산 대동강 맥주와 노가리 같은 생선 안주를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_기찬

한국 학생들은 B와의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언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래일 연계하겠습니다”, “일없습니다”와 같은 생소한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금세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서원과 지나의 경험처럼 상상했던 언어의 장벽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B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을 때, 민족적 동질감이 커졌다. 지나는 B와 한국어로 대화할 때에 진심이 느껴졌다고 했다. 함께 국제학생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는 한국어로 소통할 때 더 솔직한 속내를 내비쳤다.

H 대학교가 시위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 국제학생회는 시험과 수업을 과제로 대체하는 대안 평가를 도입해 국제학생들이 학기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학교 관계자들과의 조율 과정은 혼돈의 도가니였는데, 이 시기 B가 메시지를 통해 보낸 문자 내용이 인상적이다. B는 학교 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들을 했다.

“이 문건 작성 때문에 혈압이 튀어 버릴 것만 같은데... ISA(국제학생회) 생활비 및 사업비가 차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이라고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털끝만한 리해심도 없느니. 거 인상이 싹 바뀌는데...”, “그 개자식 집으로 가든 변소 간에 따라 디가든 10분만 만나자고 하면 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영어보다 한국어를 사용할 때 더 솔직하고 감정적인 표현이 튀어나왔다. 꾸밈없는 모습으로 B는 한국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북한에 대한 거리감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서원의 말처럼 언젠가 B가 주위 북한 사람들과 담은 김치를 몇몇 한국 학생들에게 나눠 준 적이 있었다. 기찬을 포함한 몇몇은 B의 생일날에 함께 모여서 대동강 맥주와 북한산 안주를 먹기도 했다. 여기서 김치와 대동강 맥주는 중요한 남북 간의 동질성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는데,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친밀감을 강화시켰다.

올포트가 지적했듯, ‘인류’를 내집단으로 포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화와 문화 사이의 낯센<sup>36)</sup>이며 이는 친숙한 문화를 보다 쉽게 내집단화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예컨대, 인도의 한국인들은 치킨 맛살라를 먹는 집단을 외집단으로 분류하고, 김치를 먹는 사람을 내집단으로 포용하는 것이다. B와의 교류를 통해서 한국 학생들은 북한 사람도 말이 통하고 김치를 먹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이는 인도라는 제3국에서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코리안’이라는 민족 경계가 보다 뚜렷하게 재구성되는 공간적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

36) Gordon W.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1958), p.41.

## 6. 나가며

북한 유학생 B와 다국적 학생들의 교류가 창출해 낸 접촉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B와의 교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B의 인간적 성격에 대한 호감은 북한에 대해 보다 열린 대화를 가능하게 했고, 북한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을 거부감 없이 수용으로 이어졌다. 둘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B와의 접촉을 통해 일지한다는 점을 인지할 때 북한에 대한 특정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데 각 개인은 출신 사회와 북한의 상황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하기도 했으며, 한국 학생들은 언어와 문화의 유사함을 재발견하면서 북한을 내집단화했다.

인도의 H 대학교는 다양성과 이질성이 교차하는 접촉지대이다. 이러한 접촉지대에서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북한에 대한 '바깥세상'의 비대칭적인 지식을 해체하는 공간을 제공했다. 먼저, 인도의 탈식민주의 담론과 사회적 분위기는 B가 지적하는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한 반발과 궤를 같이하면서 서구중심주의를 넘어 대안적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어 주었다. H 대학교 캠퍼스는 다양한 배경 출신의 인도 학생들과 국제 학생들을 자유로운 학풍으로 초대했고 접촉 시기 동안 발생했던 캠퍼스 내 대규모 학생 시위는 국제 학생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심어 주었다. 마찬가지로, 국제학생회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롭게 교류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북한 학생 B의 인식 변화를 포함한 상호작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장 큰 폭의 인식 변화를 경험한 사람

은 어쩌면 B일 수도 있다. 그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하루는 B와 무슬림 학생까지 세 명이서 신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 당시, B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설교를 늘어놓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보군요”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변하고 있었다. 문화, 언어, 가치 등 타 문화와의 끊임없는 만남 속에서 북한을 성찰하고 타자를 인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다. 그렇기에 지금은 평양에 거주하고 있을 그와 연락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아쉽다.

인도를 포함하여 독일, 중국 등지에 북한 유학생이 파견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남북한 학생들의 만남은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B와의 뜻밖의 만남을 되짚어 보며 서로에 대한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촉의 효과는 일종의 ‘탈분단의 과정’이었다. 북한에 대한 내부 관점의 수용하며 편견을 해소하고, 나아가 상호 이해를 통한 통합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B와 같은 북한 유학생들이 늘어난다면, 이들과의 일상적 만남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유형을 넘어 새로운 개방적 접촉의 형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상호작용의 양상은 보다 유연하고 탈위계적인 성격을 띠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간 마음 통합을 모색하는 데 있어 제3지대인 해외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북한 유학생과의 접촉은 새로운 사례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 접수: 3월 10일 / 수정: 4월 6일 / 채택: 4월 11일

## 참고문헌

### 1. 국내 자료

#### 1) 단행본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서울: 문학과지성사, 2015).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5).

윤인진·채정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프랫, 메리 루이스(Mary Louise Pratt), 『제국의 시선』, 김남혁 옮김(서울: 현실문화, 2015).

#### 2) 논문

고유환, “북한연구에 있어 일상생활연구방법의 가능성과 과제,” 『북한학연구』, 제7권 1호(2011), 5~24쪽.

김병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사, 2016), 1~32쪽.

박지훈, “메리 루이스 프랫과 접경 혹은 접촉지대 연구: 비판적 평가와 대안적 전망,” 『역사비평』, 제136호(2021), 155~196쪽.

방희경·이경미, “중편채널의 북한이미지 생산방식,” 『한국언론학보』, 제60권 2호(2016), 338~365쪽.

손명희, “탈남한 탈북 난민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 캐나다 토론토 거주자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2권 1호(2018), 139~181쪽.

신난희, “탈북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갈등에 관한 문화적 분석: 자생적 조직 활동과 상호 문화적 실천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6권 2호(2016), 301~349쪽.

신혜란, “동화-초국적주의 지정학: 런던 한인타운 내 한국인과 교류 속 탈북민의 일상과 담론에서 나타난 재영토화,”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1호(2018), 37~57쪽.

-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 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남한 주민에 대한 북한 근로자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 연구』, 제17권 2호(2013), 131~158쪽.
- 윤철기·양문수, “북한 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시대 연구: 마음체계 통합 연구를 위한 시론,” 『현대북한연구』, 제16권 2호(2013), 251~280쪽.
- 이수정, “접촉시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출신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2014), 85~126쪽.
- 이수정·양계민, “북한출신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출신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2013), 395~421쪽.
- 이수정·이우영, “영국 뉴몰든 코리아 타운 내 남한이주민과 북한난민 간의 관계와 상호인식,”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1호(2014), 137~174쪽.
- 이우영·구갑우, “남북한 접촉시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마음의 지질학’ 시론,” 『현대 북한연구』, 제19권 1호(2016), 269~310쪽.
- 이우영·남보라, “새로운 접촉시대의 모색, 무형문화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씨름’ 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2권 3호(2019), 174~199쪽.
- 조정아, “북한 주민의 ‘일상의 저항’: 저항 유형과 체제와의 상호작용,” 『북한학연구』, 제7권 1호(2011), 25~74쪽.

## 2. 국외 자료

### 1) 단행본

Allport, Gordon W., *The Nature of Prejudice* (New York: Doubleday, 1958).

Fetterman, David M., *Ethnography: Step-by-Step*,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2010).

### 2) 논문

Behera, Navnita Chadha, “Re-imagining IR in Ind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7(2007), pp.341~368.

- Darby, Phillip and A. J. Paolini, "Bridging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ostcolonialism," *Alternatives: Global, Local, Political*, Vol.19, No.3 (1994), pp.371~397.
- Krishna, Sankaran, "Race, Amnesia, and the Educ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Alternatives: Global, Local, Political*, Vol.26, No.4(2001), pp. 401~424.
- Lipura, Sarah Jane D., "Deconstructing the periphery: Korean degree-seeking students' everyday transformations in and through India," *Comparative & International Education*, Vol.16, No.3(2021), pp.252~275.
- Nonini, M. "Shifting Identities, Positioned Imaginaries: Transnational Traversals and Reversals," *Ungrounded Empires* (New York & London: Routledge, 1997), pp.203~227.
- Pettigrew, Thomas F. and Linda R. Tropp,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0, No.5(2006), 751~783쪽.
- Pratt, Mary Louise, "Arts of the Contact Zone," *Profession*, Vol.91(1991), pp.33~40.

## A Contact Zone in New Delhi: A Study of Multinational Students' Change in Perception after Interacting with a North Korean Student

Choi, Youngh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i, Sunkyung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defines 'H', a university in New Delhi, India, as a contact zone in which multinational students interacted with a North Korean student, 'B', and aims to examine the students' changing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ns. An overseas campus is a social space that enables relatively equal status, unconfined interaction, and close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Through an in-depth ethnographic interview, this study looks at the students' everyday interaction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transformations of their social relationships and perceptions. This unique case study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ree distinct aspects. First, it involves a North Korean, who 'legally' migrated abroad, and his interaction with other multinational peers including South Koreans. Second, it analyzes the 'space factors' within

the context of a foreign campus. Third, it can serve future researches by illuminating a broader context of contact zone, namely the outside world.

Keywords: North Korean student studying overseas, New Delhi, contact zone, social relations, perception, spatial effect